



주님 나라 임하소서
9일기도

함께 하시는 하느님

캔터베리대주교
사라 멀랄리

번역 워십투게더
대한성공회



주님 나라 임하소서
9일기도

Thy Kingdom Come: Novena
(Written by Archbishop of Canterbury Sarah Mullally)
Copyright © 2026 Thy Kingdom Come.
Used with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worldwide.

Scripture quotations taken from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Copyright © 1973, 1978, 1984, 2011 by Biblica, Inc.
Used with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worldwide.

Cover photo: Sarah Hu (unsplash.com)
Photography provided by unsplash.com and stock.adobe.com.
Photos used with permission.



주님 나라 임하소서
9일기도

함께 하시는데 하느님

캔터베리대주교
사라 멀랄리

번역 워십투게더
대한성공회

추천의 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hy Kingdom Come'(TKC) 기도운동은 2016년 캔터베리 대주교 저스틴 웰비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지금은 전 세계 85개 교파를 아우르며 약 100만 명의 기독교인이 함께하는 초교파적 기도운동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기도운동은 승천대축일부터 성령강림절까지 평일 기준 9일 동안 이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냉담 중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다섯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어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시키신 것처럼, 내 삶도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교회를 비추어 보면, 마음 한편이 무겁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 명령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제자도이며, 이웃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2026년 TKC 기도책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God With Us)을 주제로, 일상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도록 초대합니다. 매일 성서 묵상하며 진심으로 마음속에 품은 다섯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는 단지 말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일상에서 나타나게 하는 삶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며 우리를 당신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의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울교구의 모든 교우들이 은혜로운 기도의 여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 위에 성령의 은총이 임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삶에, 우리 교회에, 내가 기도드리는 사랑하는 이의 삶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아멘."

서울교구장 김장환 엘리야 주교

+ Elijah. Kim

다섯 명을 위한 기도와 안내

함께 기도하며, 하느님 나라를 일구어 갑시다
우리가 이 9일 기도를 드리는 동안,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곁에 이미 와 있는 하느님 나라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나누는 사랑과 환대 속에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은총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이들을 위해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그 나라가 이 땅에 뿌리 내리는 다정하고 확실한 통로가 됩니다.

1단계. 하느님 나라를 함께 누리고 싶은 다섯 명을 떠올려보세요

아래와 같은 분들을 마음에 품고, 9일 동안 매일 그 이름을 정성껏 불러주세요.

-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친구
- 잠시 교회와 멀어졌지만, 여전히 하느님의 그리움 안에 있는 사람
- 몸과 마음이 아파 위로와 치유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
- 일터와 이웃에서 늘 마주치는 소중한 동료와 이웃 중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

다섯 명을 위한 기도문

사랑의 하느님, 제가 지금 ○○○을 당신 앞에 올려드립니다. 당신의 나라가 그의 마음속에 임하게 하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이 그의 일상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가 당신의 사랑과 평화를 맛보게 하시며,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소서. 제가 그에게 작고 다정한 빛이 되어, 당신 나라의 기쁜 소식을 삶으로 전하는 빛이 되게 인도하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꽃피워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단계. 하느님 나라는 '다정한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하느님 나라는 일상의 작은 사랑을 나누는 데서 시작됩니다.

- 안부 묻기: “잘 지내세요? 요즘 마음은 좀 어떠신지 궁금했어요.”
- 시간 나누기: “우리 조만간 차 한 잔 나누며 편하게 이야기해요.”
- 함께하기: “우리 공동체에 참 따뜻한 모임이 있는데, 부담 없이 같이 가보실래요?”
- 삶의 이야기 나누기: 어려운 교리보다는 내가 기도를 통해 얻은 평안과 일상의 감사를 자연스럽게 들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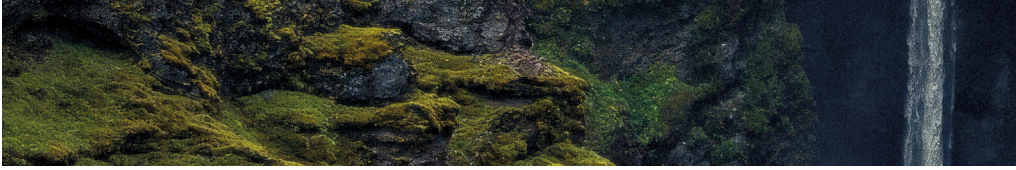
그리고 이렇게 동행해 주세요

- 따뜻한 환대가 있는 예배나 모임에 초대해 보세요.
- 교회의 소박한 행사나 가족 예배, 작은 기도 모임에 함께 해보세요.

기억하세요

-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선물입니다.
- 우리는 씨앗을 심고 물을 줄 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 그들의 여정 곁에서 끝까지 친절한 벗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하느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십니다.”



소개

사도 1:14

그 자리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하여 여러 여자와 예수의 형제들도 함께 있었다. 그들은 모두 마음을 모아 기도에만 힘썼다.

교회의 여명기부터 승천대축일과 성령강림 대축일 사이의 9일, 즉 9일 기도the Novena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넘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 했듯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나라 임하소서 Thy Kingdom Come' 기도운동이 지향하는 목적입니다. 이 기도의 물결은 현재 172개국, 85개 이상의 교파와 전통에 속한 100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을 하나로 묶어내고 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함께하시는 하느님'이며, 이는 성령께서 오늘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늘 그러 했듯, 그 중심에는 '다섯 명을 위한 기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 하지 않은 친구와 가족, 이웃과 동료 다섯 명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 또한 우리처럼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최초의 9일 기도에서 사도들은 하느님께서 복음을 세상에 전파해주시기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성령의 임재를 통해 자신들이 변화되기를, 그리하여 세상 밖으로

나아가 기쁜 소식을 전할 동력을 얻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올해 우리가 맞이하는 9일 기도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단지 하느님께 세상을 바꾸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느님께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달라고 간청하는 일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내면을 빚어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웅기장이가 진흙을 빚듯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며,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더욱 온전하게 반영하도록 이끄십니다. "진흙이 웅기장이의 손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에 있다"(예레 18:6)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빚어냅니다. 하느님은 웅기장이가 흙을 빚듯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어 그분의 형상을 더욱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만드십니다. '진흙이 웅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처럼 너희도 내 손에 있다' (예레 18:6).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듯,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자 하는 그 변화를 직접 일구어 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진정성 있는 기도에는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이후 성령의 권능을 입어 행동에 나섰던 사도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은 다섯 친구가 진정으로 하느님을 만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 자신이 그 통로가 될 수는 없겠습니까?

하느님의 도움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 그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가 남긴 글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이제 당신의 몸 외에
지상에 다른 몸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당신의 손과 발 외에
그 어떤 손과 발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연민으로 바라보는 눈은
오직 당신의 눈이며,
선을 행하러 다니는 발은
오직 당신의 발입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손은
오직 당신의 손뿐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지상에 당신의 몸 외에
다른 몸이 없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9일 기도에서 우리가 다섯명의 친구들이 하느님의 사랑과 만나는 접점이 되기를,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 하느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또한 성령으로 변화되어 하느님의 형상을 더욱 충실히 반영하는 모습으로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섯 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1.

2.

3.

4.

5.



1일차 - 승천대축일 약속하시는 성령

사도 1:6-11

- 6 사도들은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워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 7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결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 8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 끝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 9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는데 마침내 구름에 싸여 그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우리는 때로 깊은 무력감에 젖어들곤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힘은커녕, 우리 자신의 삶을 돌볼 힘조차 남아 있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복음의 기쁨

을 타인과 나누는 일은 더욱 아득하게만 다가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건가요?"



그 물음 끝에 돌아오는 것은 “그것은 너희가 알 필요는 없다”라는, 어찌 보면 야속하고도 실망스러운 대답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력감을 느끼고, 어둠 속에 갇혀 수많은 미지의 것들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능력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비록 무력함과 어둠 속에 갇혀 수많은 미지의 장벽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힘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여전히 무력감을 느끼며 이 약속이 과연 실재하는지 의구심을 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멀리서 답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 그리고 전 세계 172개국에서 이 9일 기도에 함께하는 수많은 동역자가 증거입니다. 당신을 통해, 성공회 공동체와 보편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참 되었음을, 그리고 복음이 이미 땅끝까지 닿았음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신앙 선조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듯, 오늘 날의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땅끝까지 도달할 능력이 허락되었다면, 우리가 마음에 품은 다섯 명의 친구에게 닿을 수 있는 능력 또한 분명히 주어졌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현존하는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 두신 신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우리에게 허락된 그 능력을 사용하여 다섯 명의 소중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2일차 창조 세계를 감싸는 성령

창세 1:1-5

- 1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 내셨다.
- 2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 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 3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
- 4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 5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첫날이 밤, 낮 하루가 지났다.



마음속으로 가장 깊은 어둠을 상상해 보십시오. 빛이 전혀 닿지 않는 상태를 넘어, 빛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한 적 없는 근원적인 어둠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토록 완결된 어둠, 더는 깊어질 수 없는 칠흑 속에서도 희망은 존재했습니다. 성령께서 물 위를 감돌며 그 어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침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처지가 어떠한 성령께서 오늘날에도 우리 곁을 지키신다는 사실은 제게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성령의 임재를 감각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타인의 존재를 통해 성령의 현존을 가장 선명하게 깨닫곤 합니다. 제가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돌보는 완화의료 간호사로 일하던 시절, 저는 사람들이 극심한 상실감 속에서 예고 없이 찾아온 삶의 단절을 마주하며 깊은 슬픔에 잠기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진실은, 이들이 간절히 바란 것은 명쾌한 해결책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일,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며 함께 머물러 주는 일이었다는 점입니다. 직접적인 만남은 물론, 마음 깊은 곳에서의 영적인 연대 안에서 말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도구 삼아 역사하시며, 그분의 영은 우리라는 통로를 통해 세상에 전해집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불러 어둠 속에 머무는 모든 이와 함께하게 하십니다. 이사가 예언자가 선포했듯, 주님의 영이 우리를 보내어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 주고,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며, 어둠에 갇힌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사 61:1-2).

우리가 마음에 품은 다섯 친구 중 누군가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우리가 그들의 곁을 지키며 성령의 임재를 나누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3일차 은혜의 성령

룻기 1:16-18

¹⁶ "저에게 어머니를 버려 두고 혼자 돌아 가라고 너무 성화하시지 마십시오" 하며 룻이 말했다. "어머님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겠으며, 어머님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겨레가 제 겨레요 어머님의 하느님이 제 하느님이십니다.

¹⁷ 어머님이 눈 감으시는 곳에서 저도 눈을 감고 어머님 곁에 같이 묻히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 됩니다. 죽음밖에는 아무도 저를 어머님에게서 떼어 내지 못합니다."

룻이 그 고백을 내뱉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든 모암의 집과 대가족,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을 지탱해 온 모든 익숙한 것들을 뒤로하고 떠나야 함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누군가를 온전히 섬긴다는 것은 평온한 날에도 고단한 일인데, 하물며 상대방이 나를

밀어내는 상황에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룻은 바로 그러한 거절의 무게를 견뎌 내야 했습니다.

나오미는 깊은 상실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었고, 다시 가정을 꾸리기에는 너무 늙었으며, 자녀를 얻는 일은 더더욱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하느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에서 쓰라림을 의미하는 마라로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말아요. 전능하신 이께서 나에게 쓰라림을 가득 안겨 주셨다오. [...] 그런데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시오? 야훼께서는 나의 허물을 들추어 내셨다오. 전능하신 이신께서는 이렇듯이 나에게 불행을 안겨 주셨다오.' (룻기 1:20-21).

절망의 끝에 선 이들이 흔히 그러하듯, 나오미 역시 가장 가까운 이들을 밀쳐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 거친 반응 너머에 숨겨진 슬픔을 꿰뚫어 보았고, 결국 그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룻은 참으로 은혜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를 향한 룻의 사랑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봅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향한 당신의 온전한 헌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너희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날에도 성령을 통해 우리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 그리고 마땅히 해야 했으나 하지 못한 일들을 통해 그분에게서 등을 돌리곤 합니다. 나오미가 룻을 밀어낸 것보다 훨씬 더 완강하게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느님께서 매일 성령을 통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이에게 거저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호의의 말입니다.

나오미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 은혜였습니다. 이는 오늘날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품은 다섯 친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도합시다. 고단한 순간에도, 아니 특히나 힘겨운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다섯 친구들을 은총으로 대해야 할지, 그들의 안병을 위해 어떻게 헌신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어떻게 증언해야 할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4일차 듣게 하시는 성령

사무상 3:1-11

사무엘은 하느님의 궤가 있는 야훼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는데, 하느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야훼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야훼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제야 엘리는 야훼께서 소년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 알아차리고 사무엘에게 "가서 누워 있어라. 그리고 다시 부르는 소리가 나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야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일러 주었다. 사무엘은 돌아 와 자기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러자 야훼께서 거기에 나타나 서서어 아까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야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에게 가장 합당한 기도의 처소는 어디 입니까? 교회 안입니까, 아니면 대자연 속을 거닐 때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평온한 집 안 침대 위나, 완전한 침묵이 흐르는 공간입니까?

우리에게는 저마다 하느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주파수를 맞추는 자신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제게는 매일 아침 집 안에서 성서를 묵상하고 아침기도를 바치며 고요히 머무는 그 자리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나 장소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규칙적인 일상의 리듬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실 공간과 시간을 내어드리고, 내 영혼이 그 울림을 경청할 수 있게 하는 거룩한 습관 말입니다.

어린 사무엘에게는 밤이라는 시간과 누워 있는 자세가 필요했던 듯합니다. 주님의 궤가 모셔진 성소라는 장소 또한 매우 적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성령의 음성을 처음 접했을 때,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서로 다른 주파수로 송수신 하는 무전기를 든 것처럼 어긋난 반응을 보였고, 어쩌면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는 결정적인 조언을 얻습니다. 성경에서 엘리는 그리 훌륭한

인물로 그려지지는 않으나, 이 대목에서만큼은 귀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는 사무엘에게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 즉 제자리로 돌아가 올바른 주파수에 맞추어 응답하는 법을 일러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엘리는 사무엘이 참된 기도의 길로 들어서도록 도운 셈입니다.

만일 우리가 마음에 품은 다섯 친구가 사무엘처럼 신비로운 부르심을 듣게 된다면, 그들은 그 음성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께서서는 오늘날에도 그들을 부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분께서 분명히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엘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다섯 친구들이 그 부르심을 있는 그대로 듣고, 그 부르심에 귀 기울이도록 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무엘처럼, 그 부르심에 귀 기울이는 것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5일차 확신하게 하시는 성령

판관 6:11-14

- 12 야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일렀다. "힘센 장사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 13 기드온이 반문하였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애집트에서 올라 오게 하실 때 야훼께서 온갖 기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우리는 선조들에게서 들었습니다마는 그 기적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은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붙이시지 않으셨습니까?"
- 14 그러자 야훼께서 그를 돌이켜 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러 가거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요?'

이 글을 마주하는 이들 중에는 기드온이 던졌던 이 처절한 질문을 가슴에 품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느님께 버림받았다는 소외감과 들끓는 분노 속에서, 과거의 그 찬란했던 기적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왜 지금 이 순간에는 침묵하시는지 묻는 기드온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와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께 항변할 때, 아니 어쩌면 바로 그 순간에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힘을 가지고 가거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께 기대하는 바로 그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세상 속으로 파견하십니다.

암 병동의 간호사로 일하며 저는 인간이 가장 깊은 무력감을 마주하는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세상의 논리로는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공간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묻곤 했습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사랑의 하느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면, 왜 저의 병은 외면하십니까?"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그곳은 역설적으로 놀라운 신비가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비록 완전한 육체적 치유나

모든 의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절망의 파도를 넘는 이들의 걸을 지키며 그들이 남은 생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서 그러하셨듯, 우리 역시 그 고통의 한복판에 함께 머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에 품은 다섯 친구를 떠올리며 희망의 부재를 느끼고, 그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전부하다고 낙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좌절하지 말라고 독려하십니다. 하느님께서 홀로 일하시기를 막연히 기다리기 보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미약한 힘을 의지하여 나아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지하든 그렇지 못하든, "주님께서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망설임 때문에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성령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품고 우리 자신을 다섯 친구에게 보내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지닌 그 작은 힘을 도구 삼아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6일차 속삭이시는 성령

열왕상 19:9 하반절-13

- 9 "엘리아야, 네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 10 엘리아야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과 맺은 계약을 저버리는 것을 보고 만군의 하느님 야훼를 생각하여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당신의 제단을 헐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죽였습니다. 이제 예언자라고는 저 하나 남았는데 그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 11 다시 음성이 들려왔다. "앞으로 나가서 야훼 앞에 있는 산 위에서 서 있거라." 그리고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 한 줄기가 일어 산을 뒤흔들고 야훼 앞에 있는 바위를 산산조각 내었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 12 지진 다음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불길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불길이 지나간 다음, 조용하고 여린 소리가 들려왔다.
- 13 엘리아야는 목소리를 듣고 겹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동굴 어귀로 나와 섰다. 그러자 그에게 한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아야, 네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엘리야의 대답이 꽤나 타당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는 정직하고도 합리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와 같은 처지에서 누군가 몸을 숨겼다 한들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을 상황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엘리야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는 산이 쪼개지고 땅이 뒤흔들리며 불길이 치솟는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모든 소용돌이가 지나간 뒤, 성령께서는 다시금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는 사무엘과 엘리 예언자의 이야기와는 그 결이 다릅니다. 엘리야는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말씀을 명징하게 듣고 이해했으며, 그에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바로 이러한 대화를 통해 그를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하느님께서 그가 머무는 장소가 궁금하여 질문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엘리야가 왜 그곳에 머물고 있는지 이미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하느님의 질문은 엘리야가 이제 그만 변명을 멈추고, 숨어 있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 행동하게 하려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마침내 그 질문에 담긴 진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끊임없이 마주하며 답해야 할 질문은 과연 무엇일지 자문해 봅니다. 제게 그것은 "나는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온전히 발휘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은 질문을 품고 계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질문은 여러분이 마음에 품은 다섯 친구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신앙의 이야기를 건네지 못했을까? 왜 그들을 공동체의 자리로 초대하지 않았을까?" 하는 물음을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질문이 귓가에 계속 맴돈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질문, 특히 우리가 마음에 품은 다섯 친구와 관련된 그 물음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질문을 애써 외면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고, 오직 행동으로써 그 부르심에 화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7일차 이끄시는 성령

판관 4:3 하반기-5

- 3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께 울부짖었다.
- 4 그 때 이스라엘을 다스린 판관은 라삌돏의 아내 여예언자 드보라였다.
- 5 그가 에브라임 산악 지대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밑에 자리잡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기도의 응답이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
으로만 당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나
엘리아처럼 하늘의 음성을 직접 대면하여
듣는 것이 신앙의 당연한 전제라 말하기는 어렵

습니다. 대신 우리는 타인의 삶과 입술을 통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을 발견하며, 그들
을 매개로 주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성서의 기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중에 하느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드보라를 통로 삼아 당신의 뜻을 전하고 계심을 깨달았고, 그녀가 자신들의 앞길을 밝혀주기를 소망했습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 곁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그들을 섬기는 이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늘 변함없이 경청하시는 성부 하느님, 그리고 섬김을 받기보다 도리어 섬기러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 또한 이와 곁을 같이합니다.

모든 사목자가 그러하듯, 저 역시 이러한 영적인 지도력을 본받고자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기보다 각자의 내면에 깃든 최선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지도력, 섬김을 통해 상대의 영혼을 일깨우고 확신을 심어주며,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고유한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도록 조력하는 지도력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우리 곁에서 동행하는 지도자들이 존재합니다. 성령의 은총 안에서 우리를 섬기고 인도하며, 우리 내면의 선한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성직자와 평신도 사목자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이 드보라를 찾아 지혜를 구했듯, 마음에 품은 다섯 친구를 신앙의 길로 안내할 방법을 고민하며 성직자를 찾는다면,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지도자를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그들이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귀 기울임으로써, 우리가 소중한 다섯 친구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구체적인 길을 온전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합시다.



8일차 다스리시는 성령

마태 3:13-17

- 13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래아를 떠나 요르단 강으로 요한을 찾아오셨다.
- 14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게 오십니까?" 하며 굳이 사양하였다.
- 15 예수께서 요한에게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은 예수께서 하자 하시는 대로 하였다.
- 16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홀연히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 위에 내려오시는 것이 보였다.
- 17 그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 이야기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낱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성탄은 창조주께서 스스로를 비워 낮아지신 신비의 날입니다. 단순히 피조물의 일부가 되신 것을 넘어, 가장 비천한 처소인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성 금요일에 그분은 피조물과 다름 없이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자신을 낮추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고난과 온갖 모욕을 견뎌내셨습니다.

또한 본문에 기록된 세례 장면에서, 그분은 마치 죄 있는 피조물 중 하나인 듯 피조물의 손을 통해 세례를 받으시며 영적인 정화의 예식에 드셨습니다. 만일 이것이 엄연한 사실이 아니라면, 과연 그 누가 이토록 경이로운 사건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는 결코 보여주기를 위한 단편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겸손이야말로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주권을 지탱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야 비로소 성령께서 임하시어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안에서 '주권'과 '겸손'이 역설적으로 맞닿아 하나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에게 실증해

보이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역시 이 진리를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타인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간호사이자 사제이며,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타인의 발을 씻기라는 고귀한 소명을 마주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은 다섯 친구를 향해서도 말입니다. 은유적인 의미에서든 실제적인 행위에서든, 발을 씻기는 일의 본질은 헌신적인 봉사와 돌봄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는 겸손의 지극한 상징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낮출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 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마태 23:12).

만물을 다스리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된 겸손의 은총을 허락하시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셨듯 우리 또한 종의 마음으로 마음에 품은 다섯 친구를 정성껏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9일차 복음을 전하시는 성령

사도 8:26-35

[...] ²⁹ 그 때에 성령이 필립보에게 "가서 저 마차에 바싹 다가서 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³⁰ 필립보가 달려갔을 때 그는 이사야 예언서를 읽고 있었다. 그래서 필립보는 "지금 읽으시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³¹ 그러자 그 내시는 "누가 나에게 설명해 주어야 알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하고 대답하며 필립보더러 올라와 곁에 앉으라고 하였다. [...]

우리는 매일같이 새로운 얼굴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길에서 스치는 모든 이에게 인사를 건네거나 대화를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모든 만남에 응답하려 한다면, 일상의 그 어떤 과업도 완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타인에게 말을 거는 일을 주저하는 까닭이, 단지 시간이 부족하거나 분주해서뿐일까요?

낮선 이에게 먼저 다가가는 일은 누구에게나 고단한 과제입니다. 특히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삶의 궤적을 그리는 것처럼 보이는 대상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공통분모가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가벼운 안부를 묻는 일조차 망설여 지는데, 하물며 그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묻기 위해 걸음을 옮기는 일은 얼마나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하지만 필립보는 그 어려운 일을 수행해냅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자문했을지도 모릅니다. ‘갈릴래아 어촌 마을 출신의 평범한 내가, 에티오피아 왕실의 높은 관료와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그러나 성령의 응답은 명료했습니다. 일단 가서 살피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대화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필립보는 그에게 이사야 예언서에 담긴 심오한 진리를 전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하면 유능한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 일화를 통해 너무도 자명하여 도리어 간과하기 쉬운 진실 하나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대화의 문을 열지 않고서는, 결코 하느님에 관해 이야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필립보에게 구체적인 대화의 매뉴얼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필립보에게는 그러한 지침이 절실했을지라도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보다, 명확한 하나의 지시만을 내리십니다. “저 마차에 바싹 다가가거라.” 하느님께서서는 대화가 시작된 이후의 과정을 필립보가 충분히 감당해낼 것임을 온전히 신뢰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소명을 건네십니다. 그것은 스치는 모든 이에게 말을 걸라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질 필요 또한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느님께서서는 적어도 우리가 마음에 품은 그 다섯 명의 친구에게만큼은 먼저 말을 건네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구사해야 할지 세세하게 가르쳐주시지는 않더라도, 그분이 원하시는 핵심은 대화의 단초를 마련하는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일은, 필립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다가갔던 상황보다는 분명 수월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극적인 순간을 마주할 확률은 적을지라도 말입니다.

성령의 부르심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응답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스스로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낄지라도, 용기를 내어 마음에 품은 다섯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대화의 길을 낼 수 있도록 도우심을 청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대화를 시작한 우리를 믿으시고, 그 이후의 일들 또한 기꺼이 맡기실 것입니다.



10일차 모든 시대의 성령

2디모 1:3-7

- ³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내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 ⁴ 나는 그대가 눈물을 흘리던 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만나게 되면 내 기쁨은 더할 나위 없이 클 것입니다.
- ⁵ 나는 그대의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도 지금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 ⁶ 그래서 나는 다시 그대를 깨우쳐줍니다. 내가 그대에게 안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그 은총의 선물을 생생하게 간직하십시오.
- ⁷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은 우리에게 비겁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를 주십니다.



수년 전,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간호사로 일해왔지만 정작 환자가 되어본 적은 없었고, 전신 마취도 처음이었습니다. 평온함이나 자신감이 없었고,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취가 되기를 기다리며,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손을 잡아준다고 수술의 위험이 줄거나 병이 낫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했을 것이니까요.

우리는 모두 외로움이 무엇인지 압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소외감을 느끼는 것, 누군가와 인격적으로 연결되기를 갈망하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순교 전, 차가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디모테오를 보고싶어 하는 그의 마음이 절절합니다. 그가 따뜻한 포옹을, 적어도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을지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닿는 것의 중요성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접촉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했듯, 하느님의 선물인 성령은 안수를 통해 디모테오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도 세례성사를 베푸는 손길을 통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접촉의 신비를 통해, 성령은 바울의 시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를 걸쳐 우리 사이에 계시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형체도 없고 시공을 초월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서로의 손을 맞잡는 바로 그 구체적인 시공간의 지점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렇기에 할 수 있다면 이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해온 다섯 사람과 나눕시다.

우리가 마음에 품은 다섯 친구들이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그들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다독이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알맞고 따뜻한 방식으로 우리가 성령의 위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청합니다.



11일차 - 성령강림대축일 약속의 성령

사도 2:1-4

- 1 마침내 오순절이 되어 신도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 2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들이 앉아 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 3 그러자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렸다.
- 4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 밝히시고...’
(성가 314장)

이 고대 찬미가는 찰스 3세의 대관식 중, 왕에게 기쁨과 성령으로 안수하기 전 울려 퍼진

노래입니다. 원래 라틴어로 된 이 노래는 영국의 여러 언어(영어, 웨일스어, 스코틀랜드 게일어, 아일랜드어)로 불렸습니다. 처음 오순절 당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오늘날 이



땅에 새로운 오순절이 시작되기를 간구하는 노래였습니다.

이 성가는 사실 1625년 이래 모든 영국 국왕의 대관식에서 빠짐없이 불렸습니다. 한 나라의 군주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부르심의 무게를 홀로 감당할 수 없으며,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언제나 인정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업, 특히 우리가 마음에 품은 다섯 사람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11일동안 이를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은 다섯 사람이 우리를 통해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비록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낄지라도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담대함을 통해, 종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겸손을 통해, 그들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거나 홀로 있을 때 곁을 지키는 위로를

통해, 그리고 그들의 안녕을 위해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은총을 통해 그들이 하느님께 나아가기를 간구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도를 통해 그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고 귀를 기울이기를, 우리의 행동을 통해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응답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그들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다섯 사람이 우리를 통해 하느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또한 하느님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에 의해 변화되어 은총과 겸손, 위로와 경청, 확신과 사랑의 사람이 될 것이며, 하느님의 참된 형상을 세상에 더욱 맑게 비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오순절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마음에 품은 다섯 친구들과 하느님의 사랑을 기쁘게 나눌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Notes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notes,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Notes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notes,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thykingdomcome.global

대한성공회